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99

JCCT 2022-7-13

## 간호여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Academic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in Female Nursing students

박성희\*, 변은경\*\*

Sung Hee Park\*,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여대생 1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균 3.74±0.84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진로계획( $t=2.672$ ,  $p=.008$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학업스트레스( $r=-.371$ ,  $p<.001$ )와 부적상관관계, 학과만족도( $r=.472$ ,  $p<.001$ ), 대인관계 만족도( $r=.301$ ,  $p<.001$ )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beta=-.262$ ,  $p=.002$ ), 학과만족도( $\beta=.403$ ,  $p<.001$ )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26.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학업성취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academic achievement in femal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59 female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academic achievement in female nursing students was 3.74±0.8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with career plan ( $t=2.672$ ,  $p=.008$ ), There was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academic stress ( $r=-.371$ ,  $p<.001$ ),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and department satisfaction ( $r=.472$ ,  $p<.001$ ),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 $r=.301$ ,  $p<.001$ ).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the study subjects were academic stress ( $\beta=-.262$ ,  $p<.001$ ), department satisfaction ( $\beta=.403$ ,  $p<.001$ ),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26.3%.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various program that can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in female nursing students.

**Key words** : Academic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ademic Achievement

\*정희원,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희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26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일

Received: May 26, 2022 / Revised: June 21, 2022

Accepted: July 2, 2022

\*\*Corresponding Author: byunek@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생 전반에 걸친 중요한 과도기인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며 개인의 가치관,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1]. 또한 대학생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학업과 심리 사회적 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2]. 특히 대학생에게 학업성취는 교육목표 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부모, 교수자, 동료와의 관계 등과 밀접히 관련되어 학생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3].

최근 의료환경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새롭게 발생하는 각종 질환 및 신기술 등의 증가로 인하여 간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직 능력이 요구되고 있어[4] 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론과 기술습득에 목표를 두고 있다[5]. 이로 인해 대부분 20대 초반 연령대의 여성으로 구성된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량과 학업스트레스, 교내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호사 국가시험을 준비해야하는 교육현실에 노출되어 있다[6]. 미래와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진로를 선택한 간호대학생은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노출은 반항, 좌절, 과음 등의 행동장애와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무능감 및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과 능력의 저하, 학업과정의 중도포기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7]. 이와같이 간호대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업성취가 중요함에도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중재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학습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생활 동안 학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심리적 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8] 간호대학생은 전공지식의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에 대한 중압감이 높아 타과 학생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9-10]. 또한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11-12], 간호대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는 간호학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여 학업성취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대학생의 상당 수가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어[13]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도 학업성취의 또 다른 요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대학생활과 교과과정에 훨씬 적극적이고, 진로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여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있는 행동과 함께 학업성취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14], 전공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학과만족도는 교과만족, 관계만족, 일반만족과 학교만족의 5개 하위요인을 포괄하고 있어[16] 전공만족도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와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학업성취도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미래의 삶에 대해 계획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미래의 사회생활을 위한 성숙한 대인관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17]. 대학생에게 대인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선후배, 친구, 교수 등과의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18], 대학생의 부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은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고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은 학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인관계 능력의 함양을 위한 교과목 구성의 필요성도 나타나고 있다[20].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관계의 만족은 학과만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내[21]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만족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에 소개한 B 대학교 간호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모바일(온라인 네이버)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비밀보장과 설문 조사 중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수 크기 결정은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80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인 103명이 산출되었다.

자료수집은 2021년 7월 1일에서 7월 30일까지 진행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15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Oh, Cheon[22]의 도구와 Chon 등[2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활스트레스 척도에서 학업스트레스 문항만 추출하여 Kim[24]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수업(공부)스트레스 9문항,

미래(취업) 스트레스 5문항, 사회성 스트레스 5문항, 생활환경 스트레스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2)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Ha[16]가 수정·보완한 학과만족도 도구 중 학교만족 문항을 제외한 19문항을 사용한 Moon, Lee[2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공하고 있는 교과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5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 만족 3문항,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5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Moon,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 3)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는 Eun[26]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일반적 대인관계 만족도 5문항, 부모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7문항, 교수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7문항, 친구와의 대인관계 만족도 7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un[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7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 학점을 사용하였다.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학점은 3.0 미만, 3.0-3.5 미만, 3.5-4.0 미만, 4.0 이상으로 연속적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대생 159명으로 연령은 '21-24세' 74명(46.5%), '20세 이하' 45명(28.3%), '25세 이상' 40명(25.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64명(40.3%), '3학년' 37명(23.3%), '2학년' 31명(19.4%), '4학년' 27명(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계획은 '있다'가 142명(89.3%)으로 대부분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경력계획은 '5-10년 미만'이 56명(35.2%), '일한 후 결정' 55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취업분야는 '병원임상분야'가 115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희망취업부서는 '특수부서' 64명(40.3%), '일반병동' 47명(29.6%)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1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20	45	28.3
	21-24	74	46.5
	≥25	40	25.2
Grade	1 <sup>st</sup>	64	40.3
	2 <sup>nd</sup>	31	19.4
	3 <sup>rd</sup>	37	23.3
	4 <sup>nd</sup>	27	17.0
Course plan	No	17	10.7
	Yes	142	89.3
Career plan	1-3	12	7.5
	<3-5	31	19.5
	<5-10	56	35.2
	Decision after work	55	34.6
	No	5	3.1
Employment hope field	Hospital	115	72.3
	Healthcare official	20	12.6
	Etc.	12	7.5
	No	12	7.5
Employment hope department	General unit	47	29.6
	Special unit	64	40.3
	Neonatal/Pediatric unit	29	18.2
	Woman special unit	8	5.0
	Outpatient/Etc.	11	6.9

#### 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2.91±0.60점, 학과만족도 평균 3.79±0.50점, 대인관계 만족도 평균 3.81±0.26점, 학업성취도 평균 3.74±0.8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의 정도

Table 2. Degree of academic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N=159)

Variable	M±SD	Min	Max
Academic stress	2.91±0.60	1.43	4.87
Department satisfaction	3.79±0.50	2.62	4.92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3.81±0.26	2.19	4.00
Academic achievement	3.74±0.84	1.00	5.00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계획(t=2.672, p=.008)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academic achievement(N=159)

Characteristics	Categories	Academic achievement	
		M±SD	t/F(p) scheff's
Age (year)	≤20	3.58±0.94	1.276 (.282)
	21-24	3.78±0.82	
	≥25	3.85±0.77	
Grade	1 <sup>st</sup>	3.70±0.90	.932 (.427)
	2 <sup>nd</sup>	3.97±0.75	
	3 <sup>rd</sup>	3.68±0.78	
	4 <sup>nd</sup>	3.67±0.88	
Course plan	Yes	3.80±0.84	2.672 (.008)
	No	3.24±0.75	
Career plan	1-3	4.00±0.60	1.640 (.167)
	<3-5	3.52±0.96	
	<5-10	3.86±0.86	
	Decision after work	3.75±0.78	
	No	3.20±0.84	
Employment hope field	Hospital	3.77±0.86	.920 (.433)
	Healthcare official	3.90±0.79	
	Etc.	3.50±0.80	
	No	3.50±0.79	
Employment hope department	General unit	3.72±0.83	1.255 (.290)
	Special unit	3.83±0.83	
	Neonatal/Pediatric unit	3.83±0.76	
	Woman special unit	3.25±0.89	
	Outpatient/Etc.	3.46±1.13	

표 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N=159)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r(p)			
Academic stress	1			
Department satisfaction	-.346(<.00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538(<.001)	.550(<.001)	1	
Academic achievement	-.371(<.001)	.472(<.001)	.301(<.001)	1

표 5.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academic achievement(N=159)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3.607	.835		4.320	<.001
Academic stress	-.370	.115	-.262	-3.225	.002
Department satisfaction	.524	.108	.403	4.853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134	.155	-.079	-.866	.388
Course plan <sup>†</sup>	.236	.193	.087	1.224	.223
Adjuste R <sup>2</sup> =.263 F=15.119 p<.001					

<sup>†</sup> dummy variable(No=0, Yes=1)

#### 4.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는 학업스트레스( $r=-.371$ ,  $p<.001$ )와 부적상관관계를, 학과만족도( $r=.472$ ,  $p<.001$ ), 대인관계 만족도( $r=.301$ ,  $p<.001$ )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인관계 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 $r=-.538$ ,  $p<.001$ )와 부적상관관계를, 학과만족도( $r=.550$ ,  $p<.001$ )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과만족도는 학업스트레스( $r=-.346$ ,  $p<.001$ )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 5.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진로계획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558-.93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76-1.793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92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학업성취도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5.119$ ,  $p<.001$ ), 수정된 결정계수( $R^2$ )은 .263로 학업성취도를 26.3%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beta=-.262$ ,  $p=.002$ ), 학과만족도( $\beta=.403$ ,  $p<.001$ )로 나타났다(Table 5).

### IV. 고 찰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업성취도는 평균 3.74±0.8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평균 2.99점으로 나타난 결과[27], 간호대학생 1학년 3.68점, 3학년 3.49점으로 연구결과[28] 보다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남학생이 포함되지 않았고, 선행연구[27-28]의 연구와 달리 전체 학년을 포함한 것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학업성취도는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에서 진로계획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29]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직업을 알고,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 학업성취는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로서의 진로에 대한 이해하고 미래의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간호사의 진로를 확인할 수 있는 특강 및 현장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학업성취도는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를,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0], 인지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31],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만족도 및 교육과정 만족도 등이 수업태도에 영향을 주고 수업태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준 결과[32]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과만족도의 향상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을 잘하는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높은 결과[28]는 학업 및 학과적응을 높이므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전략과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학업성취도 확인을 통해 기초와 교양학습을 주로 이루어지는 저학년과 전공학습 및 임상실습이 병행되는 고학년에서의 차별화된 학습전략과

학습방법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대상자의 대인관계 만족도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결과[33]와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와 대인관계능력이 학과만족도와 상관성을 나타내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관계조화가 확인된 결과[34]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 학과만족도로 확인되었다.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여대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1] S.M. Lee, "Cor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ve and self-efficacy, problem-solving skil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2014.
- [2] S.K. Seo, and K.H. Kim, "A validation study of

- the test of college life adaptation”, *Student Review*, Vol. 36, pp. 1–12, 2002.
- [3] B.M. Jung, and S.J. Lee, “Academic achievement factor”, Seoul : Education Publishing, 1984.
- [4] S.H. Choi, and E.K. Byun,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stress for the elderl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8, No. 4, pp. 2303–2313, 2016.
- [5] J. Liaschenko, and E. Peter, “Nursing ethics and conceptualizations of nursing: profession practice and work”, *Journal of Advance Nursing*, Vol. 46, No. 5, pp. 488–495, 2004. DOI: <http://doi.org/10.1111/j.1365-2648.2004.03011.x>
- [6] Y.S. Im, and G.O. Noh, “Influence of smartphone addiction, sleeping condition, scholastic achievement on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Internet of Things Society*, Vol. 6, No. 2, pp. 57–64, 2020. DOI: <http://doi.org/10.20465/KIOTS.2020.6.2.067>
- [7] H.Y. Gao, “The differences i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between motivation typ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3, No. 1, pp. 125–147, 2012.
- [8] G.B. Byung, and S.M.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6, No. 2, pp. 563–585, 2012.
- [9] S.H. Shin,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1, pp. 14–24,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1.14>
- [10] E.H. Kim,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498–50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SIS.2016.17.5.498>
- [11] H.S. Lee, and N.R. Kim, “The relationships betwee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tress,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health administration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0, No. 6, pp. 291–299, 2016.
- [12] S. Akgun, and J. Ciarrochi, “Learned resourcefulness moder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Psychology*, Vol. 23, No. 3, pp. 287–294, 2003. DOI: <https://doi.org/10.1080/0144341032000060129>
- [13] Y.H. Kim, M.S. Yang, and H.R. Park, “A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291–301,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291>
- [14] M.T. Tessema, K. Ready, and W.W. Yu,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curriculum: evidence from nine years of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2, No. 2, pp. 34–44, 2012.
- [15] E.K. Joo, and J.W. Han,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1, pp. 2563–2578,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1.181>
- [16]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00.
- [17] I.K. Kim, S.W. Park, and H.M. Choi, “The relationship among smartphone addiction, communication ability,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 pp. 637–648,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637>
- [18] K.S. Kim, and H.R. Kim,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first-year students at the university of education: based on the survey of entering freshmen in 2013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 24, No. 3, pp. 185–205, 2013. DOI: <https://doi.org/10.20972/kjee.24.3.201309.185>
- [19] H.J. Jeong, “The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on dep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experiential avoidance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Daegu Catholic, Daegu, 2014.
- [20] Y.S. Song, S.B. Kwon, K.S. Ahn, Y.N. Kim, S.H. Kim, and M.J. Cha, “A study on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the students majoring dental hygiene at K-college”, *Kyunbok College*, Vol. 7, pp. 297–316, 2003.
- [21] M.H. Choi, and H.J. Lee, “Relationships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atisfaction, stress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2, pp. 160-166, 2003.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2.160>
- [22]M.H. Oh, and S.M. Cheon, "Analysis of academic stressors and symptoms of juveniles and effects of meditation training on academic stress reduction",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Vol. 15, pp. 63-96, 1994.
- [23]K.K. Chon, K.H. Kim, and J.S. Yi, "Development of the 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5, No. 2, pp. 316-335, 2000.
- [24]H.J. Kim,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cademic stress of college students playing in college amateur orchestra",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8.
- [25]I.O. Moon, and G.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1, pp. 83-91,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26]H.G. Eun, "Dose self-regulatory group counseling improve adolescents' interpersonal abilities : self-awareness, other-awareness, interpersonal skills and interperson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s thesi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2000.
- [27]E. Jeong, and M.R. Ju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on gr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9, pp. 309-317, 2018. DOI: <https://doi.org/10.14400/JDC.2018.16.9.309>
- [28]M.H. Han, "Factor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grit",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 42, No. 1, pp. 36-43, 2017.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7.42.1.36>
- [29]Y.O. Park, S.J. Park, and H. Jung, "A study on the effect of employment community characteristics on employment community commitment, job seeking efficacy, and job seeking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7, No. 2, pp. 103-124, 2017. DOI: <https://doi.org/10.35273/jec.2017.7.2.006>
- [30]J.H. Kum,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cademic self-efficacy, academic achievement and quality of life on academic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10, pp. 325-338, 2018. DOI: <https://doi.org/10.21742/AJMAHS.2018.10.72>
- [31]H.S. Park, D.S. Choi, and H.C. Kim,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3 No. 1, pp. 2079-2091, 2022. DOI: <https://doi.org/10.22143/HSS21.131.147>
- [32]J.C. Shin, T.S. Shin, and J.S. Jung, "Causal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nd its factor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6, No. 1, pp. 287-313, 2008.
- [33]S. S. Sim, and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634-64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JS.2016.17.12.634>
- [34]H.W. Kwak and S.W. Hwang,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focus o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2, pp. 239-249,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2.239>

※ 이 논문은 2022년 부산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2022교-15) 지원으로 연구되었음